

# 목소리에 의한 접촉, 전화기

글 이영경



‘삼대’의 작가 염상섭이 1925년에 발표한 소설 ‘전화’에서 주인공은 아내의 옷과 패물 등을 전당포에 잡히고 집에 전화기를 설치했다. 그 후 아내는 애타게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첫 전화는 불행히도 남편이 자주 만나는 기생 채홍이었다. 작가는 중산층의 일상으로 들어온 신기한 발명품과 그것이 빠르게 재조직하는 삶의 양상을 서사화했다. 인간은 문명의 이기를 창조하는 동시에 대가 역시 감수해야 법이니, 예나 지금이나 그 대표적인 발명품이 전화기다.

### 113년 만에 명예 되찾은 전화 발명가

전화를 처음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은 운이 좋았다. 그는 1876년 2월 특허를 신청했는데, 같은 날 우연히 일라이셔 그레이(Elisha Gray)라는 발명가도 전화기 특허 출원을 위해 특허청에 갔으나 벨이 약 한 시간쯤 빨랐다. 그에 앞서 안토니오 메우치(Antonio Meucci)도 이미 1854년에 기계식 전화기를 발명했다. 어느 자료에 의하면 메우치는 1871년 전화기에 대한 임시특허를 신청했지만 영구특허를 낼 250달러가 없어 1년 특허를 받고 갱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벨이 전화기 특허를 받아내자 메우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그가 죽은 지 113년이 지난 2002년 미국 의회는 최초의 발명자를 메우치로 인정했다. 초기의 전화기는 손으로 자석발전기를 돌려 교환

원을 불러 상대방을 호출하는 자석식 전화기였다. 그 후 1877년 에디슨에 의해 통화 거리가 연장됐으며, 1880년에는 수화기만 들면 곧바로 교환원과 연결되는 공전식 전화기가 제작됐다. 그리고 1891년 자동식 다이얼 전화기가 발명되기에 이른다.

### 김구를 살린 조선 최초의 전화기

미국에서 발명, 진화된 전화 실물이 조선에 소개된 것은 1882년으로 알려져 있고, 최초 개통된 것은 1896년 덕수궁과 인천 간이였으며 덕률풍(德律風), 전어기(傳語器) 등으로 불렸다. 당시 명성 황후가 시해되자 백범 김구는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라는 일본인을 살해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종은 인천감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년 김구에 대한 사형집행을 중지시켰다. 이는 전화가 개통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전화선 개

통이 3일만 늦어졌더라면 김구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민간 전화는 1902년 인천해관과 한성(서울) 사이에 전화선이 가설됨을 계기로 일반인도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903년에는 한성의 마포-도동(남대문)-시흥(영등포)-경교(서대문) 등에 '전화소'라는 공중전화까지 개설됐다.

### 공동의 공간에서 내밀한 개인의 영역으로

60년대부터 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전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통신시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한 대로 온 마을 사람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귀한 물건이었다. 그나마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었던 곳 중의 하나가 다방이었다. 당시 다방은 차를 마시는 만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무실이자 연락처였다. 전화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다방으로 모여들었고, '전화를 간단히 사용하자'는 공익광고가 등장하기도 했다.

통신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맞은 것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다. 전화가 가정에 보급된 이후 응접실에서 방안으로, 즉 공동의 개방된 공간에서 내밀한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1987년 1가구 1전화시대가 열렸고, 1997년에는 전화 가입자가 최초로 2,000만 명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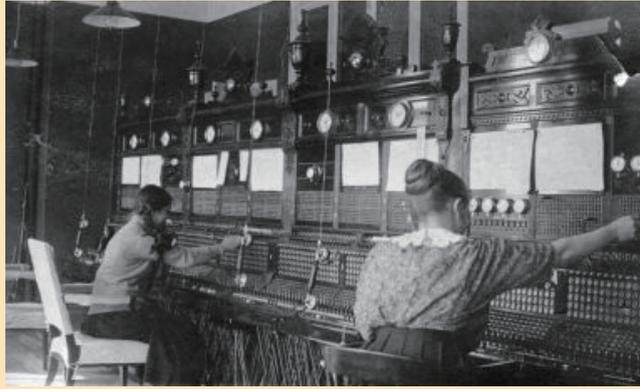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1892년 뉴욕과 시카고 간 전화 연결을 시험하는 모습

'통화 중이군요. 기차시간이 임박했는데 누가 이 여인의 긴박한 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군요. 새로 해 입은 옷 자랑을 무려 2분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1961년 '전화 사용' 관련 공익광고



다이얼식 전화기



초기의 전화교환원

### 일상과 긴밀하게 결합하며 진화한 휴대폰

“조엘? 나 마틴일세. 지금 새로 개발한 휴대폰으로 가는 거야. 조엘?”

1973년 4월 3일 모토로라 기술 개발자였던 마틴 쿠퍼는 본인이 개발한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 상대는 휴대폰 개발로 경쟁을 벌이던 조엘 앵겔이었다. 쿠퍼 박사와 연구팀은 10년이 지난 1983년 최초의 상용 휴대폰 ‘다이나택 8000X’를 선보였다. 무게가 1kg이나 되고 판매가격이 약 4,000달러였으며, 8시간 충전에 4시간 연속 대기, 30분 정도 통화만 가능했다. 한국에 처음 도입된 휴대폰도 모토로라 제품인데, 가격은 서울 일부 전셋값에 맞먹었다.

한국 휴대폰의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들 수 있다. 휴대폰 제조 기술과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연구원들은 모토로라 제품을 구입해 분해와 조립을 거듭했고, 마침내 서

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47명의 IOC위원에게 SH-100 모델을 선보이며 휴대폰의 지평을 열었다. 90년대 후반부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기술적인 변화를 겪으며 2G 휴대폰이 등장했고,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3G 휴대폰을 지나 데이터의 폭증을 감당하는 4G 시대가 열렸다.

전화는 지금까지 은밀하게 현대인의 삶의 양식을 정복했다. 휴대폰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어마어마한 양적, 질적 성장을 했으며 일상과 긴밀하게 결합하는 형식으로 발전해 왔다. 현대문명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는 설명이 낯설지 않다. 이러한 와중에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을까? 단연 휴대폰 생산업체와 3대 통신사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마다 휴대폰을 바꿔야 했기에 그 수익은 더 대단했을 것이다. 그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